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I 국어	2025학년도 고2 10월 학력평가	OX	/ 10(개)
	편견이란 무엇인가 - 샘플 버전	객관식	/ 10(개)
	(선입견에 대한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견해와 교육에의 적용)	단답/서술형	/ 15(점)

[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여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며,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선입견은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전통과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는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여야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은 판단, 즉 비판적 판단을 통해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인간의 앎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감각한 현상이 곧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입견으로 보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한 현상은 곧 실재, 즉 객관적 세계라고 가정하지만, 데카르트는 감각한 현상이 우리의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감각이 될 수 없으며,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한 이성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에 받은 교육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방법적 회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방법적 회의는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을 비

롯해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하며, 마음속에 남아 있는 선입견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사유하는 자아’만을 남게 한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이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는 학습자의 자기 인식을 목표로 하며,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는 선입견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이해의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의 이해의 작용은 필연적인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해의 작용에 있어 인간 존재는 선이해, 즉 앞서 형성된 이해인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나며,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세계에 관여하는 것, 즉 세계 안에서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때 세계는 단순히 사회적 맥락이나 관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삶의 포괄적 환경을 일컫기 때문에 이해란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다.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 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므로, 현재의 이해의 작용은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현존재’라고 지칭하는데,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 사회, 관계 등 자신이 존재해 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인간 존재의 이해는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인 이상,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인식은 무한한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해석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발전시키며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는 흔히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적 언술도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이며,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숙고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숙고란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을 이른다. 하이데거는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인간 존재가 포함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른 교육은 이해 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OX 퀴즈]

1.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선입견을 바탕으로 삼아 이해의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2. 데카르트는 교육의 목적으로 학습자의 자기 인식을 제시하며,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데카르트는 외부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비판적 판단을 중시한 반면, 하이데거는 세계에 관여하는 실천적 차원의 이해를 중시했다.
4.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잘못된 판단은 다른 감각을 통해 교정될 수 있다.
5. 하이데거의 해석의 순환 과정은 반복적인 해석 활동을 통해 세계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객관식 문항]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카르트는 감각한 현상이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 ② 데카르트는 교육 과정에서 방법적 회의를 통해 선입견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 행위로 여겼다.
 - ④ 하이데거는 과학적 언술 또한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⑤ 하이데거는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교육이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했다고 평가했다.
7. **해석의 순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거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 ②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 활동이 시작된다.
 - ③ 해석 활동의 결과는 다시 선입견에 영향을 주어 선입견을 발전시킨다.
 - ④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
 - ⑤ 인간 존재의 이해가 과거의 시간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과학적 탐구는 연구자가 속한 공동체의 통념이나 기존 학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데카르트가 도달한 '사유하는 자아' 역시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사유한다는 점에서 세계와 무관할 수 없다.
- ③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와 달리,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가 실재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데카르트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학습자의 선입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⑤ 하이데거는 인간의 이해가 역사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진리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9.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탐구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탐구 주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본 역사책 읽기의 의미

탐구 과정

1. 독자는 '현존재'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와 시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역사책을 읽기 시작한다.
2. 독자는 역사책에 서술된 과거 사건들을 자신의 선입견을 통해 해석한다.
3. 이 과정에서 독자는 책의 내용과 자신의 기존 이해 사이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자신의 선입견을 수정하거나 발전시킨다.
4.

탐구 결론: 역사책 읽기는 고정된 과거 사실의 습득이 아니라, 독자의 현재적 삶과 연관된 능동적인 이해의 작용이다.

- ① 독자는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역사책의 다른 부분을 읽으며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 ② 독자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단 한 번의 독서로 완결된 의미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 ③ 독자는 역사책 읽기가 자신의 삶과 분리된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 아님을 인식한다.
- ④ 독자는 이성적 비판을 통해 역사책에 담긴 저자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도달한다.
- ⑤ 독자는 역사책 읽기를 통해 자신이 역사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현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숙고의 과정을 겪는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다음은 데카르트와 하이데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데카르트: 진정한 앎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지식과 감각 경험을 의심하고 배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견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이데거: 저는 그 전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특정 역사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삶의 이력을 모두 지워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데카르트: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삶의 이력이야말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권위에서 벗어난 진정한 판단은 오직 ㉠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 ①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다른 감각을 통해 교정하는
- ② 자신이 속한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천하는
- ③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 ④ 특정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배제하는 자아만이 남은
- ⑤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의 필연적인 발판으로 인정하는

[단답/서술형 문항]

11. (가)의 데카르트와 (나)의 하이데거가 선입견을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대하고 있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조건>

-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데카르트의 입장은 ‘~을(를) 가리키며 ~ 대상으로 본다’의 형식으로, 하이데거의 입장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 것으로 본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12. (가)를 참고하여, 데카르트가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적 회의’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도달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3점]

<조건>

- ‘방법적 회의는 ~을/를 말하며, 이를 통해 ~ 상태가 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지문에 나온 용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1. O

(나)의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선입견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이해의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2. X

(가)의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3. O

(가)의 첫 번째 문단과 (나)의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선입견을 초월한 비관여적 판단을, 하이데거는 세계 안에서 살며 무언가를 하는 관여적 이해를 강조했다.

4. X

(가)의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감각이 될 수 없으며,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5. X

(나)의 네 번째 문단에 따르면, 해석의 순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

6. 정답 ⑤

[정답해설]

(나)의 5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교육이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했다고 평가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감각한 현상이 곧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입견으로 보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② (가)의 3문단 따르면 데카르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방법적 회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이해란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다'고 하였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과학적 언술도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라고 보았다.

7. 정답 ④

[정답해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해석의 순환 과정을 거치므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 따라서 고정된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는 설명은 적

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나)의 4문단에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해석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② (나)의 4문단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라고 하여, 해석이 선입견에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③ (나)의 4문단에서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발전시키며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⑤ (나)의 3문단과 4문단을 종합하면, 선입견은 과거의 역사에서 비롯되고 해석의 순환은 이 선입견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 과정은 이해가 과거의 시간성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8. 정답 ③

[정답해설]

(나)의 4문단에서 하이데거는 '흔히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적 언술도'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았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눈앞의 모습)과 객관적 세계(실재)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의 2문단에서 데카르트 역시 감각한 현상이 실재와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데카르트와 달리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공동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선입견으로 보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나)의 2, 3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필연적으로 세계에 관여하며 자신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이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자아' 역시 특정 역사적 환경 속에서 사유하는 존재이므로 세계와 무관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④ (가)의 1, 3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선입견으로 간주하고,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이해가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고 보았고, 과학적 언술도 '조건부 진리'라고 하였다. 이는 이해가 역사적 조건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한다.

9. 정답 ④

[정답해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선입견을 이해의 필연적인 발판으로 보았다. 따라서 선입견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과 맞지 않다. 또한 (나)의 4문단에서 하이데거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조건부 진리라고 보았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도달한다는 설명도 하이데거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나)의 4문단에서 설명하는 '해석의 순환' 과정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② (나)의 4문단에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고 하였다.
- ③ (나)의 2문단에서 이해는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삶과 분리된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다.
- ⑤ (나)의 5문단에서 설명하는 '숙고'의 개념, 즉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10. 정답 ④

[정답해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는 '비관여적 판단'을 통해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의 3문단에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적 회의'를 제시하는데, 이는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고 '선입견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사유하는 자아만을 남게' 하는 것이다. 이때 선입견은 (가)의 1문단에 따라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진정한 판단은 선입견이 배제된 자아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감각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은 다른 감각이 될 수 없으며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해의 방식이다.
-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해석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이다.
- 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선입견을 이해의 필연적인 발판으로 삼는 것은 하이데거의 관점이다.

11.

모범답안

데카르트: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키며, 진리를 구하기 위해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하이데거: 인간의 이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의 작용을 위해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채점 기준표

조건	점수
(가)의 1문단에 제시된 선입견의 정의를 서술하였다.	1
진리를 구하기 위해 배제해야 하는 것임을 서술하였다.	1

선입견이 인간의 이해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1
선입견이 이해의 작용에 필연적인 것임을 서술하였다.	1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하다.	1

12.

모범답안

방법적 회의는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을 비롯해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마음속의 선입견이 제거되어 온전한 '사유하는 자아'만 남게 되는 상태가 된다.

채점 기준표

조건	점수
(가)의 3문단에 제시된 방법적 회의의 정의를 서술하였다.	1
방법적 회의의 결과 '사유하는 자아'만이 남게 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1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하다.	1